

GCI Korea 뉴스매거진

더스토리북



5월

2023 / 1-8호

COVER STORY

별 같은 사람들

멘토로 섬기며



전하석 목사
GCI Korea 멘토
스피릿교회 담임

안녕하세요. 1년 동안 GCI를 멘토로 섬긴 전하석 목사입니다. ‘별 같은 분들’을 만난 지난 1년인 것 같습니다. 별을 바라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듯이, 어떻게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재미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재미있고,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GCI에 대한 열정을 조은아 교수님과 나눌 때 참 즐거웠고, 조정민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에 뜨거웠으며, 전성걸 목사님 그리고 떠오르는 스타인 석진성 목사님과의 시간이 늘 웃음이었습니다. 제 삶을 싱그럽게 하는 이슬처럼 스며져 다가왔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 되는 것 아녜요? 제 아내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도 ‘이번에는 뭐가 좋았어요?’하고는 되묻기 시작하더군요.

별 같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로버트 솔러가 “Turn your scars into stars, 너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왔는데 아름답고 빛나는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듦의 시기에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 아픔과 어려움이 왔는데 아름답고 빛나는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 ● 힘듦의 시기에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코호트와의 첫 만남

저희 코호트와의 첫 번째 수업을 저는 미국 안식월 기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미국시간으로 저녁에 시간을 맞추면 온 가족이 다 방 밖으로 나가야 했지요. 그런데도 아래층 식탁에서는 무슨 나눔을 하나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문화구조, 가치편견, 교차역학 구조 등 강의 속에서 나눠진 내용을 줌 미팅으로 실제로 나눌 때마다 가슴이 한가득 부풀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분 한분들의 코멘트가 때론 깊이 박혀진 못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체면문화가 있어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훈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 새로웠고, 강남 MZ세대는 식당에 가서 주인이 아는 척 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에 흠칫하기도 했습니다. 부교역자가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까지 정해준다는 사역 여건에 작지 않은 충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 살아가기 이전 한 사람으로 겪어 온 삶의 궤적들을 나눌 때는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목회의 상실감, 어쩔 수 없는 패배감들이 사역이라는 종이에 흠부러지는 듯했습니다.

깊은 나눔

첫 번째 1박 2일 코호트에서 조은아 교수님이 전해 주신 아버님의 유언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넬슨이 올 거야.' 한 사람을 만날 때 마다 온전히 섬겨야 할 목회자의 자세를 어떤 이론과 신학보다 더 분명하게 새겨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과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1박 2일 나누며 좀 더 의기투합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호트가 시작되기 전 노병균 목사님 교회에서의 오프라인 미팅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다음 학기 리뷰와 수업에 관한 내용을 잔뜩 준비했지만, 정작은 현장에서 목회하는 노 목사님과의 나눔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성경 통독에 대한 마음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저희는 1시간을 예정했다가 3시간 30분여를 수다를 떨다가 왔습니다.

'강의가 시원치 않으니 숙소가 뇌물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조정민 목사님과의 1박 2일. 정말 숙소가 최고였을 뿐만 아니라 강의는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마음에 불을 받았다.'라고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원고 없는 설교는 저를 포함해 많은 분이 도전하고 계신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끝나게 된 영성 형성 시간은 화룡점정인 것 같습니다. 매주 줌 미팅에서는 렉시오 디비나 등 다양한 영적 실천을 경험하게 되었고, 코호트 강사로 오신 유기성 목사님의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은 실제로 보며 더욱더 결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존귀한 목사님들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는가"란 생각이 다가올 때 참 두려웠습니다. 겁도 없이 멘토 사역을 시작했다가 난처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귀한 분들 얼굴 뵈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수업은 집중하지 못하고 좀 농땡이를 많이 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그렇게 지나온 시간, GCI와 함께 하길 잘했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힘든 시기에 저에게는 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잠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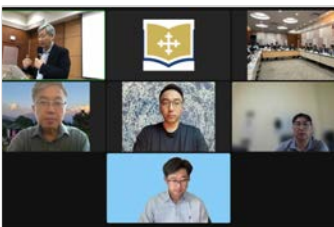
봄학기 대면공동학습 영성

어드바이저: 유기성 목사
2023. 04. 24 ~ 25. 안성수양관



다함께 현장에서 만나는 마지막 대면공동학습이었던 이번 만남은 다시 한번 우리 안의 동료애와 나눔으로 풍성 했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들을 통해 성찰하고 받은 도전에 기초하여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목회적 어려움들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GCI 프로그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봄학기 대면공동학습이 은혜 중 개최되었습니다. 어드바이저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학기 대면공동학습의 주제는 "영성" 이었습니다. 목회가 목적이 아닌 주님과同行的 동행이 목적이 되는 행복한 목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달의 GCI 알림

봄학기 학습 마무리

- 봄학기 학기말 프로젝트는 한 학기동안 자신이 실천한 **영적 실천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실천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그 영향 등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 봄학기 학습 진도가 미비하신 분들은 이번 달을 활용하셔서 학습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DMin 신청 준비

- GCI 프로그램 이수 후 DMin으로 편입학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지원서/서류들을 6월 30일까지 제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지원서**
받으시게 될 지원서 링크 클릭 후 작성 및 제출
- 성적 증명서**
MDiv 성적 증명서(MDiv 졸업이 아닐 경우 최종 성적 증명서)를 출신학교에서 고든콘웰 입학 담당자에게로 직접 제출
- DMin 지원 지지서(Letter of Endorsement)**
섬기시는 교회가 지원자의 DMin 지원을 지지한다는 편지를 작성 후 서명 혹은 직인날인 후 고든콘웰 입학담당자에게로 직접 제출

자세한 설명은 단톡방을 통해 받으신 DMin 신청 준비 안내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학기 준비

- 여름학기는 6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름학기의 주제는 "통합"**입니다. 지난 학기동안 학습하신 내용을 **최종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학기**입니다. 전달해 드린 최종 프로젝트 지침을 꼭 확인하셔서 여름학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학기 **대면공동학습은 ZOOM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확보 및 참여 필수!!!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 - 오후 12시

1인 1초청 캠페인

- 2023년도 GCI 신입생 모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학생 여러분께서 **또 다른 한 분을 지원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1인 1초청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캠페인 참여자에게 드리는 혜택

- DMin 편입학자가 신입생 1인을 GCI에 초청할 경우 편입학자와 신입생 모두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드립니다!